

성 프란시스 대학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여는 임영인 신부 인문학은 성숙한 관계를 위한 바탕

글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노숙인들은 도시 속의 섬과 같이 고립된 존재입니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연결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소통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책이고, 인문학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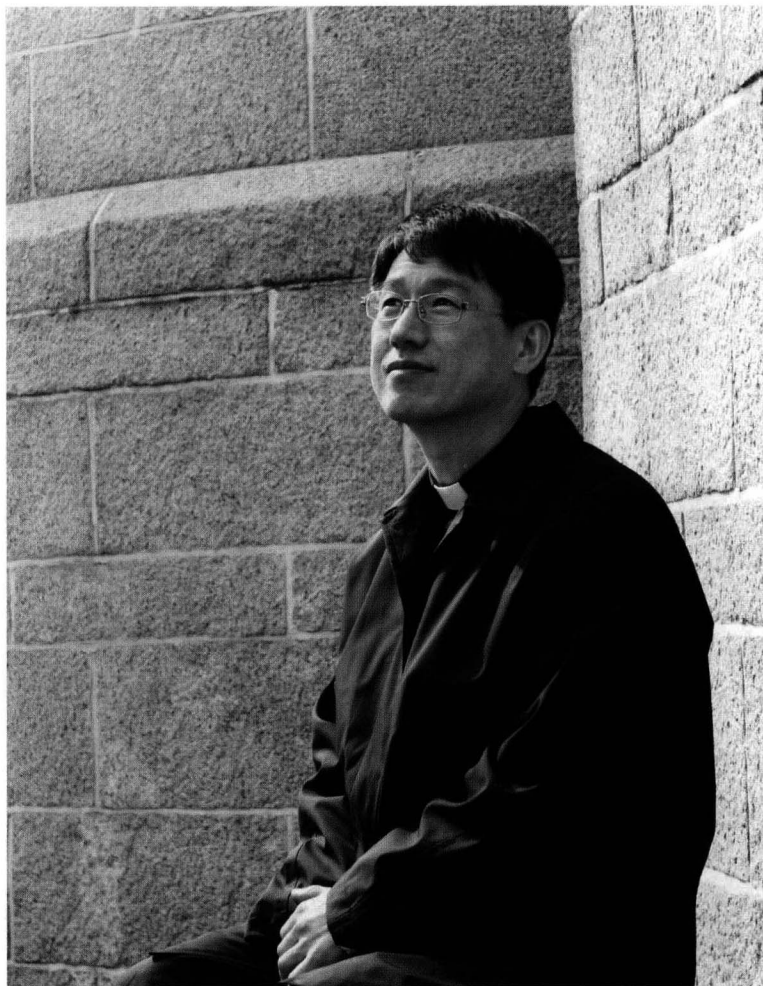
성 프란시스 대학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올해로 3기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 강좌를 개설한 노숙인다시서지기원센터의 임영인 신부는 가난한 이들에게 책과 인문학이 갖는 의미를 위와 같이 표현했다.

성 프란시스 대학은 대한성공회가 노숙인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 2005년 9월에 개설한 학교이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얼 쇼리스가 창설한 '클레멘트 코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처음 임 신부가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려고 결심했을 때 센터의 실무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들이 생각하기에 노숙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거리, 잠자리, 일자리처럼 직접적인 서비스인데, 인문학이니 책이니 하는 말을 하니 그럴 만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 빈곤층, 노숙자를 위해 일하면서 물질적인 문제 외에도 교육을 통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좀더 단단하게 현실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좌의 입학생들은 1년 과정으로 역사, 철학, 문학을 공부하게 된다. 강사는 서울대 미학과 김문한 교수, 도서평론가 최준영 씨, 철학아카데미 박남희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 등 1급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방식 또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생활 특성상 1년이라는 수업 기간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첫 해에는 신입생 20명 중 13명이, 다음해에는 17명 중 11명이 수료했다. 꽤 높은 졸업률이다. 현재 이 졸업생들은 사회인으로 새 출발을 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이 강좌를 단발성의 이벤트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올해로 21명의 신입



생을 맞이하는 3기에 이르자 많은 이들이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 신부는 '노숙인에게 인문학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친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인문학은 성숙한 관계를 갖기 위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바탕이지 '노숙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졸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 새가 알에서 태어날 때 안에서 껍질을 부수면 어미 새가 밖에서 같이 돕는 것이죠. 인문학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원할 때 인문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좀 더 많은 이들이 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임영인 신부**